

# 2013년 국민부담률 4인 가구 3천만원 넘는다

세금·국민연금·의료료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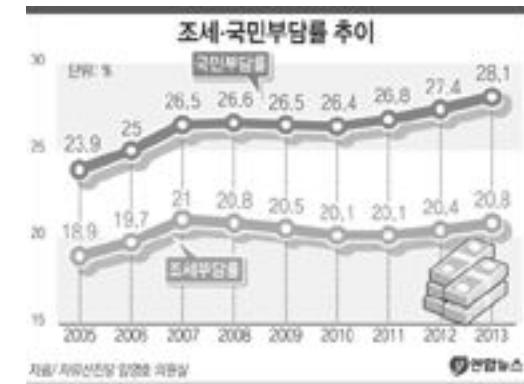
1인 부담률도 785만원 '껑충'

각종 조세와 연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해마다 높아져 2013년에는 국민부담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감세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부담률은 희보세를 유지하지만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크게 증가해 국민의 지출부담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와 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6%에서 올해 26.5%, 내년 26.4%로 매년 0.1%포인트씩 낮아진다.

하지만 2011년 26.8%로 0.4%포인트 상승한 뒤 2012년 27.4%, 2013년 28.1%로 꾸준히 올라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다. 역대 국민부담률 최고치는 2006년 26.6%였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60만원 원에서 올해 559만원 원으로 소폭 낮아지지만 내년에는 595만원 원으로 600만 원에 유행하고 2011년 648만원 원, 2012년 713만 원, 2013년 784만원 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201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액이 3천139만원 원으로 3천만 원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2013년 부담액은 올해보다 40.2% 늘어나고, 10년 전인 2003년(383만8천 원)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0년 새 국민부담액이 배 이상 늘어난 셈이

다.

국민부담액의 증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다 국민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담액은 소득 증가율 이상으로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세금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률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2009년 20.5%에서 2010년 20.1%, 2011년 20.1%, 2012년 20.4%, 2013년 20.8%로, 국민부담률과의 격차(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가 2009년 1.0%포인트이던 것이 2013년에는 7.3%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부담률은 개인과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0여 대기업 사업장

### 에너지 강제절감 추진

포스코를 비롯해 모두 200여개 대기업 사업장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에 걸쳐 사전에 설정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강제적 에너지 사용 절감책이다.

25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연도의 적용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 TOE(석유환산톤)

## ■ 주간 증시 포커스

### 환율 안정, 반등 시도 기대

### 조정 거친 IT주 분할 매수

근 2주일 동안 집중적인 매도세를 이어왔고, 그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발표 이후에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역(逆)모멘텀 현상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 대부분의 실적 및 향후 실적전망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시장도 견조함을 유지함에 따라 이러한 모습이 다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와 삼성전기의 경우 이전까지의 다른 기업들과 달리 주가가 실적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때 1,150원대까지 주락하면서 국내 증시의 최대 악재로 급부상했던 원화환율은 지난주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힘입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환율은 일정 수준에서의 방어에 대해 정부가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환율변수가 주식시장을 뒤흔드는 고비는 어느 정도 일 단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달러화의 기조적인 악세를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원화환율의 하락압력은 쉽게 가지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지지선의 설정이 확인된만큼 한동안은 지지선 상단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훈련을 우려한 투신권의 매도공세도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 높아 보인다. 투신권은 더블딥 충격에 따른 기업들의 4분기 실적악화 가능성에 우려해 수출주를 중심으로 최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제주 풍력발전소

### 800억 들여 준공

남해종합건설(주)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해종합건설(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규모 풍력발전소를 준공,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남해종합건설(주)은 25일 자회사인 한신에너지(주)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일원에 '제주 삼달 풍력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사진> 다음달 6일 준공식을 할 예정인 제주 삼달 풍력발전소는 사업비 800억 원이 투입돼 시설용량 33MW를 갖추고 있다. 연간 발전량은 8만7천MW로, 2만9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최경일기자 cki@



도넛모양 테이프 참 예쁘죠

한국쓰리엠(3M) 스카치 브랜드가 25일 오전 이마트 용산점에서 '스카치 매직테이프 도넛디스펜서' 출시를 기념해 도넛모양 테이프를 예쁘게 장식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 光銀, 신용대출비중 54%

### 연체율은 0.71%로 낮아

광주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이 타은행에 비해 1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원화대출 9조5천93억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5조1천435억원으로 5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은행 평균 45.0%와 지방은행 평균 43.5%에 비해 각각 9.1%와 10.6% 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9월말 현재 연체비율은 0.71%로, 지방은행 평균 1.14%보다 0.43%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행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고, 연체비율은 낮은 것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선진화되고 차별화된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완도 전복·벌교 꼬막·장흥 키조개

### 수산물 지리적표시권 보호 강화

'완도 전복', '장흥 키조개' '벌교 꼬막'처럼 특정 지역산(產)이어서 유명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보호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합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개정한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강화했으나 이번 내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합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

로 한 것이다.

지리적표시제란 '보르도 와인', '스카치 위스키'처럼 지명(地名)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유명세나 품질 등과 직결된 경우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수산물 가운데 지리적표시권이 등록된 품종은 완도의 전복·미역·다시마, 벌교 꼬막, 기장 미역·다시마, 장흥 키조개 등 7가지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는 경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 (제360회)

등위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지	당첨자 수	당첨번호
1	16 23 25 35 40	27	1조	624293
2	6개 숫자 일치	3,566,716,200	3	2조 568521
3	5개 숫자+보너스 수지일치	54,041,155	33	499996
4	5개 숫자 일치	1,476,290	1,208	1천만원과 조가 다른 번호
5	50만	59,139	60,311	63973
6	2천	5,000	1,005,187	4849
7	1천			각주 57
				각주 50
				각주 24
				각주 7
				각주 3
				각주 6

## 팝콘복권

## (제183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2	1억	2조
3	3조	1천만원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주
5	50만	각주
6	2천	각주
7	1천	각주

## 국민공인증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금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건물과표15억/매매가11억

▶ 대지300평건평450평보증금1억7천20m도로집

분양가8억 아파트1300세대상가매가2억5천

▶ 35m도로 절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명 지분 93p

한의원과 함께 적립

▶ 공시지가+건물과표8억 매매가5천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대 1300평 건물 230평 상업지역

▶ 공시지가+건물과표7억 매매가4억2천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 상업지역 95p

▶ 공시지가3억5천만매가2억4천30m 도로 절

남해비단가 700,000p 입야 140억, 골프장 태양광

32억 릴딩 금매

▶ 대 200p 건 450p 보 8억